

개화기 한국어의 일면

- 낙선재본 번역소설 『홍루몽』을 중심으로 -

李 賢 熙 *

I. 들어가기

이 글은 개화기 시기 한국어의 일면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여기에서는 『紅樓夢』¹⁾과 6종의 번역소설, 즉 『홍루몽(紅樓夢)』(낙선재 필사본²⁾ 117책, 전 120책 중 24, 54, 71 缺) 및 그 繢書인 『후홍루몽(後紅樓夢)』(낙선재 필사본 20책) · 『속홍루몽(續紅樓夢)』(낙선재 필사본 24책) · 『홍루부몽(紅樓復夢)』(낙선재 필사본 50책) · 『홍루몽보(紅樓夢補)』(낙선재 필사본 24책) · 『보홍루몽(補紅樓夢)』(낙선재 필사본 24책) 가운데 번역소설 『홍루몽』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담겨 있는 개화기 시기의 한국어가 보이는 특징적인 몇 가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번역소설 6종은 고종 21년(1884) 경에 李鍾泰(1850~1908)라는 譯官이 高宗 임금의 명을 받아 많은 역관들을 동원하여 일시에 번역해 낸 것으로 필사연대는 19세기 말로 추정된다.³⁾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이루어진 '홍루몽 완역본'으로 알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중국에서 1791년에 최초에 간행된 백화소설 『紅樓夢』과 1799년부터 1820년 이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된 그 繢書들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은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藁』 卷7, 〈小說辨證說〉에 『속홍루몽』이 『홍루몽』, 『요재지이』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체로 1830년대 이전에는 유입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崔落澈 1991, 박재연 2007 참조).

2) 낙선재본은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

져 있다.

이들 《홍루몽》계 번역소설은 다양한 내용과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 개화기 시기의 한국어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게 인정된다. 한국어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에 담겨 있는 言語材를 연구해 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특히 문장 표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동안 개화기 시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문장 표현을 다룬 연구업적은 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 어휘 표현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글의 분량상 필자가 흥미롭다고 판단하는 몇 가지 문법 사실에만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번역소설 《홍루몽》은 1988년에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紅樓夢(樂善齋本)》(一~十五) (亞細亞文化社, 1988)으로 영인되어 나온 바 있다. 그리고 6종의 《홍루몽》계 번역소설들에 대한 校註本이 그 完譯 120주년을 기념하여 선문대학교 박재연 교수 팀에 의해 2004년에 완간되어 나온 바 있다.

- (1) a. 권도경 · 박재연 · 김영 校註(2004). 《홍루몽》(상),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17-1, 이회.
a'. 박재연 · 이재홍 · 김영 · 권도경 校註(2004). 《홍루몽》(하),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17-2, 이회.
b. 장경남 · 이재홍 · 강문종 校註(2004), 《후홍루몽》,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19, 이회.
c. 최윤희 · 김명선 校註(2004). 《속홍루몽》,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21, 이회.
d. 박재연 · 이재홍 · 김영 · 김명신 校註(2004). 《홍루부몽》(상),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18-1, 이회.
d'. 박재연 · 김명신 · 김영 · 우춘희 校註(2004). 《홍루부몽》(하),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18-2, 이회.

3) 李鍾泰에 대하여는 金鍾澈(1985: 2-3)과 최용칠(2007: 28~34; 72~76)을 참조하였다. 낙선재본 《홍루몽》의 '이종태 번역설'은 李秉岐(1940)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e. 김정녀·박재연 校註(2004), 『홍루몽보』,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16, 이회.
- f. 김정녀·최길용·박재연 校註(2004), 『보홍루몽』,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총서 20, 이회.

(1)의 6종 교주본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朴在淵·金瑛·李玟淑의 『紅樓夢 古語辭典: 홍루몽계 필사본 번역소설에 나타난 어휘를 중심으로』(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4) 및 박재연·김영·이민숙의 『홍루몽 고어사전』(이회, 2005)이다. 이 글에서 검토한 대상은 15책짜리 아세아문화사 영인본과 (1a, a')의 교주본, 그리고 『홍루몽 고어사전』이다.

II. 텍스트의 체재

번역소설 『홍루몽』은 백화소설 『紅樓夢』의 120回⁴⁾ 전체를 완역한 것이다. 册大는 28.3×18.2cm이며 표지에 “홍루몽”이라는 題目과 回目을 쓴 별지를 붙여 두었다. 번역문만을 수록한 그 續書의 번역본과는 달리, 『홍루몽』은 본문 상단에 朱筆로 백화원문을 싣고 그 옆에 墨筆의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였으며 하단에 墨筆로 우리말 번역문을 수록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半面은 8행, 1행은 18자 내외의 가지런하게 宮體로 기록되어 있는데, 回目과 詩詞는 두 칸을 내려 썼다. 원문도 8행이지만 옆에 글자마다 발음이 달려 있어 크기는 작고 행마다 하단의 번역문 내용에 맞추었기 때문에 길이가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홍루몽』은 백화원문과 그 중국어 발

4) 『紅樓夢』은 80회본과 120회본의 두 종류가 있다. 80회본은 필사본이다. 120회본은 高鶚이 쓴 40회본을 딱붙여서 1791년 경 程偉元이 간행한 것을 ‘程甲本’이라 하고, 이 ‘정갑본’을 다시 손보아 1792년에 간행한 것을 ‘程乙本’이라 한다. 번역소설 『홍루몽』과 완전히 일치하는 底本은 어느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程刻本 이후에 출현한 本衙藏板本이나 1832년에 간행된 王希廉板本 등이 그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崔溶澈 1991, 박재연 2007 참조).

음표기, 그리고 대역번역문(및 협주)를 두루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注音對譯本이라는 특성을 보인다고 파악되기도 한다(최용철 2007). 우리는 이 번역소설 《홍루몽》의 텍스트적인 성격이 일반적인 諺解本과 어느 일면 유사성이 있음에 특히 주목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번역소설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번역되었는지 짚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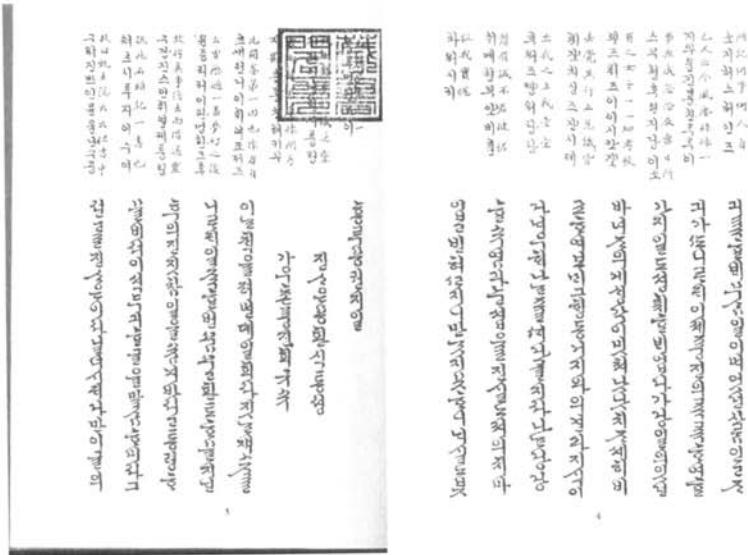
백화소설 《紅樓夢》 120回의 글자수는 약 71만 자 정도라고 한다(崔溶澈 2004a: 17). 번역문에 해당하는 백화원문을 상단에 기록하고 매 한자의 왼쪽에 중국음을 달아 두었다. 권1의 맨 앞 부분을 대표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a. 紅樓夢卷之一
 홍루명진즈이
 艄土隱夢幻識通靈
 진쓰인명환시통령
 賈雨村風塵懷閭秀
 차우춘봉친왜귀수
 此開卷第一回也作者自
 츠캐쥔디이휘여조저즈
 云⁶⁾曾歷過一番夢幻之後
 윤 증리궈이판명환즈후
 故將眞事隱去而借通靈
 구장진스인취얼제통령
 說⁷⁾此石頭記一書也
 쉬 츠시투지이수여
 故曰甄土隱云云但書中
 구워진쓰인윤운단수중
 所記何事何人
 소지허스허인

5) 成書過程에 대하여는 이미 최용철(2007: 69~70)에서 자세히 추정된 바 있다.

6) 원래의 백화원문에는 '云'과 '曾' 사이에 '因'자가 더 들어 있다.

7) 원래의 백화원문에는 '說'과 '此' 사이에 '撰'자가 더 들어 있다.



b. 홍루몽 권지일
진수은몽환식통령
가우촌풍진회규슈

이는 척을 펴면 대일회라 짓는 채 스스로
니르디 일죽 혼 번 삼꾸고 환토호를 지닌
후의 진것 참 일을 습겨 바리고 통령호
를 버리 이 석두과 혼 글을 말숨호미라 그
런고로 진수은이라 닐너시되 다만 이 글의
괴록호 비 무숨 일이며 엇던 사름인고

(2a)는 欄上에 적혀 있는 白話原文 및 그 중국음 표기이다. 중국음은 매 한자에 한 음절로 달아 두었다.⁸⁾ 이를 통하여 19세기 말의 중국

8) 매 한자의 중국음 표기가 한 음절로 되는 데 비해, 중국어 직접차용어는 두 음절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일례를 들어, 清代의 화폐 단위 '吊'의 차용어 표기가 '주오' (홍루몽 27: 60; 36: 21)와 '주위' (홍

음의 실상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바, 특히 비슷한 시기인 1883년에 번역된 《華音啓蒙諺解》의 것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⁹⁾ 기존의 중국어 학습을 위한 역학서들은 매 한자에 正音과 俗音의 두 가지를 달아 두었으나 이 두 문헌에서는 한 가지 음만을 달아 둔 점이 크게 차이난다. (2b)는 본문으로서 백화문을 번역한 19세기 말의 한국어를 담고 있다. ‘紅樓夢卷之一 홍루명 즈이’ 및 ‘홍루몽 권지일’은 卷次를 표시한 것이고, ‘甄士隱夢幻識通靈 진쓰인명환시통령 賈雨村風塵懷閨秀 샤워춘봉친해귀수’ 및 ‘진수은몽환식통령 가우춘풍진회규슈’는 回目을 표시한 것이다. ‘此開卷 츠캐’ 부터 ‘何人 허인’ 까지,¹⁰⁾ 그리고 ‘이는 최을 폐면’ 부터 ‘엇던 사람인고’ 까지는 소설 본문에 해당한다.

특이한 것은 번역문 내에 간간이 협주가 나타나는 점이다.¹¹⁾ 전체 567개에 달하는 이 협주는 독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중국의 典章制度 등 어려운 구절 풀이나 인명·지명 등을 밝혀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崔溶澈 2004: 70). 다음에 몇 예를 들어 둔다.

루몽 36: 17)로 된 것이 그 사실을 잘 보인다. ‘吊’의 중국음 표기는 ‘吊’ 정도가 될 것이다.

9) 김태성(2003)에 의하면 번역소설 《홍루몽》의 번역 및 중국음 표기 작업은 사역원의 공식적인 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한 단순 번역작업에 불과하고, 중국어 교재로서의 기능도 의도되지 않았다고 한다. 《華音啓蒙諺解》의 중국음 표기와의 대조도 김태성(2003)에서 일부 이루어진 바 있어 참조된다. 그 둘 사이에는 중국음 표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0) 이 백화원문은 이른바 ‘程甲本’ 계통의 ‘王希廉評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용철 2007: 255).

11) 소설 내에 협주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무정》에도 ‘현관’과 같은 새로운 단어에 협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일면 이해가 된다. 신소설이나 현대소설이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된 것과 단행본으로 둑여 나왔을 때의 것이 내용서지학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인직의 《혈의누》도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a. 그 속이의 요란케 호기를 노름판의 쇼축[노름판의 져희호는 놈이라]과 그
 치 흐고(撥亂其間, 如數中小丑一般.) (홍루몽 1: 19)
- b. 다만 드러니 둘째 문 우희 전수 운판[문루의 널판으로 높히 달고 일이 이시
 면 두다려 알게 흐는 거시라]을 련호여 네 번을 두드리니 이는 정히 상수호
 는 부음이라(只聽二門上傳事雲板, 連叩四下 正是喪音.) (홍루몽 13: 14)
- c. 견일의 관리가 경립[스쥬단조]을 가지고 와 친사를 구호거늘(前見官媒拿了
 個庚帖來求報) (홍루몽 72: 78)
- d. 껏출 스르고[습인을 니른미라] 샤향을 훗허야[샤월을 니른미라] 규중의 비
 로쇼 사롭마다 그 권호를 먹음을 거시오(撫花散麝而閑閣, 始人含其勸矣哉.)
 (홍루몽 21: 34)
- e. 로야는 다만 말숨호시되 계선[신을 나리여 겸치는 법이라]을 청호여 겸치
 기를 잘호노라 흐시고 청선당[계선을 청호는 당이라] 우희 겸치는 단을 비
 설호여 일읍 군민으로 져마다 보라 흐시고(老爺只說善能扶乩, 請仙堂上沒了
 乩壇, 令軍民等只管來看.) (홍루몽 4: 39)
- e'. 내 남변의 잇셔 드러니 묘옥이 능히 계선[신령을 청호단 말이라]을 청호다
 흐니(我在南邊聞妙玉能扶乩) (홍루몽 94: 89)

(3e, e')은 같은 단어인 ‘계선’(乩仙)에 대한 협주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임이 주목된다. 이것은 120책의 방대한 분량을 가지는 《홍루몽》을 한 사람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관되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일시에 번역하였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¹²⁾

III. 문장 표현 몇 가지

먼저 표면상 주격조사 ‘-이’나 대격조사 ‘-를’이 통합한 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독특하게 실현되는 현상을 살펴본다.

12) 비단 협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의 이질적인 실현 양상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의 이질적인 실현 양상을 통해서도 《홍루몽》의 번역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후술됨).

- (4) a. 겨 량기가 도로혀 아지 못하는 거시 그 화상을 본 이후로보터 제 가진 세 인연을 쓴코져 혀여 첫지는 왕부인 얇히 잊셔 감히 성품되로 못하여 임의 보체 습인 등으로 더브러 다 관곡지 아니하고(他兩個還不知道寶玉自會那和尚以後，他是欲斷塵緣。一則在王夫人跟前不敢任性，已與寶又襲人等皆不大款治了。) (홍루몽 117: 54)
- a'. 보기의 설쾌 경 업스미 아니도 굿고 또 심히 디들지도 아니하는지라(見薛
娟似非無情，又不甚兜攬。) (홍루몽 91: 13)
- b. 다만 이삼일만 견되면 될 거슬 엊지 굿듯여 우민흐리오 (홍루몽 4: 30)
- b'. 사름이 겨유 안져서 더워 오는 거슬 네가 문득 와서 요란을 뼠는도다(人家
纏坐暖和了，你就來鬧。) (홍루몽 51: 37)

(4a)의 '겨 량기가 도로혀 아지 못하는 것'과 (4a')의 '설쾌 경 업스미 아니'는 일종의 기형적 명사문(줄저 1994a)을 형성한 것이다. 특히 후자의 예는 아직 '아니'가 부사의 용법 외에 명사의 용법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자못 풍부하게 나타나던 것이었으나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매우 위축된 양상을 보이던 것이었다.¹³⁾ (4a')의 예는 그 잔흔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b)의 '다만 이삼일만 견되면 될 거슬' 및 (4b')의 '사름이 겨유 안져서 더워 오는 거슬'은 그 문장 내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뒷 부분 '엇지 굿듯여 우민흐리오' 및 '네가 문득 와서 요란을 뼠는도다'와 문장이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이삼일만 견되면 될 테(언덕, 이로데)'나 '사름이 겨유 안져서 더워 오는 것인디, 이로데' 정도로 달리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다른 집의 파랫던들 도로혀 죄흘 거시로드' (홍루몽 4: 30)가 여기에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아래의 예문 (5a)와 비교해 보기 바란다]. (4b, b')식의 문장은 이미 그 이전 시기에도 나타나던 것이었으나 우리 학계에서 아

13) 필자는 1796년에 간행된 『增修無冤錄証解』의 '涉疑호 사름[의심자온 사름이라]을 가져 法 아니로 鐛鍊[쇠 니기듯 혀단 말이라]호야 承服호기를 요구호니(將涉疑人호야 非法鍛鍊호야 須要承服호니) (1: 3)의 '法 아니'가 기형적 명사문 'NP(-이) 아니'의 가장 뒷 시기 예라고 생각해 왔으나, 훨씬 뒷 시기인 19세기 말의 『홍루몽』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어 이채롭다.

적 언급된 바 없었던 듯하여 여기에 언급해 둔다.

- (5) a. 고사 말랴 뵈 뿐 것도 보내던들 아모려나 쁘일 거슬 다문 더듸여만녕 요호
란 그리호마 (순천김씨언간 147)
- b. 우리는 계요 디내거니와 심식야 도흔 빼 이시랴 불셔 담장이나 흘 거슬 왕
닉 업서 이제야 더그며 병환이나 쉬 쾌차홈 바라노라 (나주임씨언간 3. 비오
개집)
- c. 밸셔 누아와 문병흘 것슬 천흔 몸의 미양이 있고 병세 이디도록 흐물 몰나
흔 번 고문흐미 업더니 (화씨춤효록 2: 62)
- d. 그리 완실흔 머느리 화등의 나비 되니 하늘이 묻허던 날 죽어야 올흔 거슬
사라서 놀납고 잔잉 설운을 보고 남녀간 혼 낫 혼격 없시 청년의 요결호니
더욱 설운 회포을 어이 이기리오 (고향녹 19)
- e. 菩梧山崩 湘水絕이라야 이내 시름이 업슬 거슬 九疑峰 구름이 가지록 새로
왜라 (악학습령 669, 해동가요 일식본 491)
- f. 호마 겹하경흔이 될 거슬 원슈의 대덕으로 다행이 벼셔 낫시나 (현몽 14:
88)

이 (5)의 '-을' 명사구는 그 성격상 몇 부류로 더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詳論하지 않는다. 이러한 '-을' 명사구가 문장의 연결에 참여하는 현상은 현대한국어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¹⁴⁾

한국어에서 '만'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6) a. 혼 번 죽어서 도로혀 간경흐느니만 못하고(不如一死倒還干淨) (홍루몽 69:
68)
- b. 괴초의 죽는 거시 간경흘 만 끗지 못하고다(不如大家死了清淨) (홍루몽 34:
79)

통설적으로 (6a)의 '만'은 조사로, (6b)의 '만'은 명사로 파악되어 온 것이다. (6a)식 문장은 현대한국어에 약간의 잔흔을 남기고 있으

14) 일본어에도 그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문장들이 존재한다. 앞으로 비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6b)식 문장은 쓰이지 않는다. (6a)의 ‘간경호는니만’은 ‘간경호는만’으로도, (6b)의 ‘간경호만’은 ‘간경호리만’으로도 달리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약간 성격은 다르나 ‘그만’과 관련하여 ‘그만호’와 ‘그만두’라는 표현이 주목된다.¹⁵⁾

- (7) a. 원고는 진실노 그만호여 잊지 아니흘 거시니 (홍루몽 4: 38)
- b. 차환들이 쪼라가니 그만호여도 죽호리이다 (홍루몽 8: 57)
- c. 퀘히 와서 마셔 뼈서 이 먹을 말네야 그만호리라 (홍루몽 8: 60-61)
- (7') 일년 니에 돈을 남겨도 그만호고 못 남겨도 그만흘 거시오 (홍루몽 48: 5)
- (8) a. 경기라도 그만두고 샤기라도 그만두라 (홍루몽 2: 67)
- b. 불과 몇 낫 글주를 알면 그만두엇느니라 (홍루몽 3: 70)
- c. 한가흔 말은 그만두고 쳐설 (홍루몽 23: 33)
- (8') 글을 넓혀 일정코 열흘 공부를 칙와 닉여야 고만두리라 (홍루몽 12: 16)

(7)의 ‘그만호’는 동사로 사용된 것이고, (7')의 ‘그만호’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다. ‘그만’은 원래 “그만큼” ([정도]의 의미)이나 “그것만” ([한정]의 의미)의 중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 ‘그만호’에 들어 있는 ‘그만’은 “그만큼만”의 성격을 가져 [정도]와 [한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쯤”이라는 大略의 의미([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¹⁶⁾ 그러나 동사 ‘그만두’의 경우에는 ‘그만’이 그러한 의미를 가

15) ‘그만’, ‘그만호’, ‘그만두’의 성격에 대하여는 앞으로別稿를 통하여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한다. ‘그만두’는 ‘가만두’ 와도 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만히 두’와 ‘가만두’ 및 ‘가만히 있’과 ‘가만있’ 사이의 관계도 매우 흥미로운 탐구과제가 될 것이다.

16) 원래 ‘만’이 [정도]의 의미를 가질 때 ‘X만호’는 형용사로, ‘만’이 [한정]의 의미를 가질 때는 ‘X만호’는 동사로 사용된다. 한국어에서 [정도]만 [한정]의 의미는 구분하기 힘든 국면이 없지 않다. 현대한국어의 ‘만큼’은 대개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만, ‘내가 너만큼은 꼭 지키겠다.’나 ‘철수에게만큼은 지지 않을 테야.’에 들어 있는 ‘만큼’은 [정도]가 아니라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는 것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그 형성과정이 자못 신기하다고 할 것이다.

‘그만흐-’는 이미 17세기 문헌자료에서부터 보인다.

- (9) a. 설위 그만흐면 시뷔라 훌 거시오 (계축일기 상 25)
 - b. 감격흐오매 먹기를 과히 흐엿수오니 그만흐야 마르쇼셔 (첩해신어 2: 6)
 - c. 술란 그만흐여 얕좁소 (개수첩해신어 1: 29)
 - d. 사름의 므음을 덩흐는 도리에 결단코 그만흐지 못흐리니 (명의록언해 2: 70)
 - e. 오늘은 盛獻으로 대접을 款曲히 흐여 계시기의 양시의 몯 먹는 술을 여러
 술 먹수올 쁜 아니라 날도 어두어 가오매 그만흐여 罷하면 얻더흐시오리임
 가 (인어대방 10: 15)
 - f. 승멸증좌선근승 중경공찬피안승 법멸독횡견고승 허다승경 그만흐고 (전설
 인과곡 17)
- (9') 넉감 보읍고 일개 모두니 기운이나 그만흐여 겨시니 일가 일언 경식 업스나
(병자일기 236)

(9)의 ‘그만흐-’는 동사로 사용된 예이고, (9')의 ‘그만흐-’는 형용사로 사용된 예이다.

그런데 ‘그만두-’가 1880년대의 문헌에서부터 목격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해 두지 않을 수 없다.

- (10) a. 그만 止 그만일다 그만두다 停止 그만치 (한불자전 165)
- b. 네 우리 두 명을 양흐얏쓰니 엊지 그만두리요 (조군영적지 11)

(10)의 예들은 《홍루몽》에 보이는 (8)의 예들처럼 1880년대의 문헌에 보이는 것이다. 그 이전 시기에는 ‘그만흐-야, 예 두-’라는 구성이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였다.

- (11) a. 이를 그만흐야 두면 장초 설국흐을 길히 업수올 거시니 (천의소감언해 1:
 61)
- b. 그 사름의 情境이 하 불양흐와 참아 그만흐여 두옵들 몯흐여 다시 이리

술스오니 (인어대방 10: 12)

- c. 스연도 복 몬내 우으며 아무리 그만흐여 두면 빼라 훈들 님자 업순 일의
뉘라셔 애뼈 흐리가 이시리 (인빈애 흐오신 글월)
- d. 이 일이 그만흐야 두지 못흐리라 (쌍천기봉 18: 50)

“그 정도만 해 두다” 나 “그쯤 해 두다” 의 의미를 가지던 이 구성에서 ‘흐야’ 나 ‘흐여’ 가 생략됨으로써 ‘그만두’ 가 형성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고사’ 는 대개 타동사에 통합하던 어미구조체 였다.¹⁷⁾ 이 문헌에 형용사에 통합한 듯한 예가 있어 흥미롭다.

- (12) 그 쪽의는 제 조히 지나거니와 후일의는 도로혀 셔로 간섭지 아니할 거시니
과연 제게 희롭고야 말니라 (홍루몽 34: 42)

이 예문의 ‘희롭고야’ 는 형용사라기보다 “해로워지다” 의 의미를 가지는 자동사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문헌에서는 동사 ‘알’ 와 ‘모르-’ 가 매우 보수적인 활용형을 유지하여 일종의 연어 형식을 형성한 예들을 보여 준다.

- (13) a. 티옥이 일병 아른 체 아니하고(黛玉並不理.) (홍루몽 28: 45)
b. 네가 겨 모롱이는 아른 테 아니하느냐(作這個畸形兒不要了麼?) (홍루몽 87: 51)
- (14) a. 습인이 몰난 결의 갑죽이 머리를 드려 보니 이는 보채라(襲人不妨, 猛擡頭見是寶釵.) (홍루몽 36: 33-34)
b. 고랑이 오시는 거슬 나는 도로혀 몰난 결의 한 번 쌈빡 놀낫노라(姑娘來了, 我倒不妨, 嘴了一跳.) (홍루몽 36: 34)

‘아른 테’ 나 ‘아른 체’ 의 ‘아른’ 은 ‘알온 체 아니타’ (역어유해보 52)와 ‘져를 알온 체 말라’ (역어유해보 58)에 들어 있는 ‘알온’ 의 후계형이다.

17) 드물지만, 중세한국 문헌에 자동사에 통합한 예도 없지는 않았다. ‘그리 아니면 죽고사 마로리이다’ (삼강행실도, 런던본 열녀도, 21)가 그 한 예를 보인다. 그러나 형용사에 통합한 예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하면서 그 흔적이 ‘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알- + -은’의 내적 구조를 가졌다면 ‘안’으로 실현되었어야 할 것이다. ‘몰난 결의’(不勞)는 이 문헌에 위의 두 예만 나타난다. ‘미션 익섬이 가만이 틈을 엿보아 몬져 윤소져 세슈물의 약을 몰난 결의 드리치니’(엄씨효문청행록 10: 34)에서도 한 예를 볼 수 있는바, ‘몰난’은 ‘모르- + -아- + -은’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관형사형어미 ‘-은’에 통합한 선어말어미 ‘-아’의 사용이 중세한국어적인 성격을 띤다. ‘결’은 현대한국어의 ‘얼떨결에, 엉겁결에, 모르는 결에’ 등에 들어 있는 ‘결’이지 결코 ‘겨를’의 준말이 아님을 강조해 두고 싶다.

IV. 어휘 표현 몇 가지

『홍루몽』계 번역소설에 나타나는 어휘에 대하여는 이미 박재연(2004, 2007)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필자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몇 어휘에 대하여만 언급해 보기로 한다. 어휘 표현의 측면에서도 한 사람의 번역자만이 아니라 여러 번역자가 참여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나마지(下剩的)’(홍루몽 14: 11), ‘나만지(下剩的)’(홍루몽 40: 35), ‘남져지(餘)’(홍루몽 48: 68; 50: 48) 및 ‘남져지(剩)’(홍루몽 58: 49; 69: 79), ‘남져지(零用)’(홍루몽 83: 44), ‘못거지’(홍루몽 14: 52; 14: 66), ‘못고지(會)’(홍루몽 22: 69; 27: 54), ‘미우(強)’(홍루몽 42: 16)와 ‘미이(很)’(홍루몽 88: 52), ‘먹국(猶枚)’(홍루몽 23: 34), ‘미전(撲戰)’(홍루몽 62: 57), ‘쥬먹치기(摶拳)’(홍루몽 117: 63) 등에서 잘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 문헌에는 ‘샹프동’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어형이 등장한다.

- (15) 겨의 스부로 더브러 반일이나 슈군거리든 거시 샹프동 이 일을 위호민가 보다(和他師父咕唧了半日, 想就是爲這事了.) (홍루몽 7: 29)

이 ‘샹프동’은 백화의 ‘想就是’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샹푸

동, 샹프등, 상푸등 '샹프동'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고전시가나 고전소설뿐 아니라 신소설, 심지어는 현대소설에까지 나타난다.

- (16) a. 이 집이 아니 타물 곡절을 몰나더니 샹프동 동철이미 옥석구분 흐엿다 (악부下1: 258)
- b. 방자놈이 옆에 있다 하는 말이 나는 그게 숙향전으로 알았더니 샹프동 수포동전이오그려 (배비장전 66)
- (17) a. 어느학교인가 흐엿더니 샹프동 저학교든계지 (목단화 515)
- b. 오울치 그아씨와 죽즈사즈하고자너든놈이 샹프동 최치운이든계지 (치악산下 21)
- c. 허々 그것이 술향아리에 포닥이조각 둘는것이안인가 샹프동 신교속에서 술님식가나기에 송도집이 술을취흔 줄로 아랫지 (치악산下 49)
- d. 지금 성각을흐온즉 쪽갓흔그릇에 쪽갓흔음식을 웨 구별을 흐갯습낫가마는 샹프동 겨먹을 음식에다가 아편을타셔놋코 나와 부탁을흘것인데 향방몰으 는 숨할멈이 아편너흔 그릇을갖다가 그년을 먹엿나보이다 (현미경 227)
- (18) 올치 올치 엊제 근리에는 얼굴이 더 쇤족흐여졌다 흐엿더니 샹프동 그런 일 이로구려 응 흐고 카이젤이 웃는다 (무정 1: 113)

(16)은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에서, (17)은 신소설에서, (18)은 현대소설에서 목격되는 예들을 보인다. 그런데 '샹프동'은 현대한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엉뚱하게도 경상도 방언이라고 처리되어 있는 사전이 있다.¹⁸⁾ 《우리말큰사전》에는 느낌씨(감탄사)로 처리되어 있는데 '내괘'로 가 보라고 되어 있고, 《금성관 국어대사전》에도 그와 동일하게 감탄사로 처리하면서 '내괘'로 가 보라고 처리하면서 경상 방언이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내괘'는 모든 사전들에서 감탄사로 처리되어 있는데 “내가 괴이하게 여겼더니 과연 그렇구나, 또는 내 그럴 줄 이미 알았다”의 의미를 주고 있다. '내괘'도 그러하고 '샹프동' 등도 그러한데, 이들은 삽입절 현상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¹⁹⁾

18) 필자는 ‘想不動’에서 온 차용어가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하였다.

19) 《홍루몽 고어사전》에서는 ‘샹프동’을 ‘생각견대’, ‘원래’의 뜻을 가지는

이 문헌에서는 ‘두리건듸’의 쓰임새가 매우 활발하다.

- (19) a. 관등호신 후 바야흐로 죠셔를 청호실 거시니 다만 두리건듸 술초의나 거유 써나실 듯호도다 (홍루몽 18: 9)
- b. 삼인이 정히 방중의서 서로 기통호며 담쇼호니 보옥은 정히 두리건듸 뒤 옥이 식후의 즐기를 탐호다가 일시의 밥이 체호여 밤의 곤호를 일위면 다 신데를 보양호는 법이 아닐가 흐더니 (홍루몽 20: 2)
- c. 두리건듸 로태태 무르시거나 혹시 그 곳의 구경호려 흐셔도 나는 다만 여 괴셔 딱후호려 흐노라 (홍루몽 29: 29)
- d. 정히 올토다 나는 두리건듸 너의들이 흥취 놉흔디 너 가면 너의들을 과홍 시길가 두리더니 임의 이러케 말흘진듸 너의들은 모다 가즈 (홍루몽 38: 30)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저호듸’나 ‘저훈든’으로 표현되는 것이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저컨댄’(‘적컨댄’) 내지 ‘저컨대’과 ‘두리건댄’, ‘두리건대’(‘두리건듸’)로 대치된 것이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의 “두려워하건대”의 의미라기보다 “아마도”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²⁰⁾

다음은 ‘본보기’가 ‘볼모’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보이는 예이다.

- (20) a. 금일은 도로혀 나를 본보기를 빙드려 여러 사름을 듯게 흐느니(今日反倒
拿我作筏子, 說我給衆人聽。) (홍루몽 61: 17)
- b. 싱각호여 보니 네 심중의 드려 보고 문득 날노 볼모를 삼으려 흐니 올흐랴
(想來你心裡看上了, 却拿我作筏子, 是不是呢?) (홍루몽 91: 22)

‘본보기’가 현대한국어에서처럼 “範本”的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도 하였던 것이다. ‘樣子 본보기’(몽어유해보 19)나 그 시대에 이미 널리 “範本”的 의미로 사용되었던 예들과 사뭇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사로 파악하였다.

20) 이것은 일본어의 ‘おそらく’나 영어의 ‘I am afraid that’에서도 살필 수 있는 현상이다.

‘갓갓지(色色的)’ (홍루몽 40: 9)와 ‘갓가지로(色色)’ (홍루몽 26: 35) 및 ‘갓갓지로(色色)’ (홍루몽 30: 28)은 ‘가지가지’ 와 ‘가지가지로’ 의 준말들이다. ‘몸을 돌쳐(回身)’ (홍루몽 28: 108; 43: 63)의 ‘돌차’는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강세접미사가 원칙적으로 타동사에 통합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그런데 ‘돌’은 자동사 외에 타동사의 용법을 보임에 유의해야 한다. ‘돌차’가 ‘도르차’ (< 도르티-)>에서 줄어든 말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자어 한두 가지를 언급하기로 한다. 이 문현에는 ‘원처(外處, 他處)’ (홍루몽 51: 14; 68: 14)가 여러 번 사용되어 있다. 한자어 내에서의 ㄴ 침가현상이 일어났음을 보이는 것이다. ‘간정호-(乾淨)’ (홍루몽 21: 61; 33: 25)와 ‘간조호-(乾燥)’ (홍루몽 29: 79)는 박재연(2004, 2007) 및 《홍루몽 고어사전》에서는 중국어 직접차용어로 파악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통적인 한국한자음[東音]에서 ‘乾’은 “하늘”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卦 이름일 경우 그 음이 ‘건’ 이지만, “마르다”나 “말리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음이 ‘간’ 이었는데 현대한국어 시기에 ‘건’ 으로 합류한 것이다.

‘불과(不過)’ (홍루몽 3: 70), ‘불과시(不過是)’ (홍루몽 67: 9), ‘불과호여(不過)’ (39: 29)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불과호여’는 어휘형태화한 부사이다. ‘실노이’ (홍루몽 113: 71)와 ‘별노이’ (홍루몽 83: 93)는 잉여적인 파생접미사 ‘-이’의 덧붙음 현상을 보인다(졸고 2010). ‘도시(都是)’ (홍루몽 69: 81; 90: 67)은 19세기 들어 널리 쓰이게 된 부사이다.

‘도져히’ (到底)는 “끝까지, 확실하게, 깊이”의 의미를 가져 부정어 뒤에 주로 쓰이는 현대한국어에서의 용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21) a. 태태괴셔 도져히 지혜가 계시도다 (홍루몽 46: 13-14)
- b. 니 윙희가 도져히 성각을 잘 흐도다 (홍루몽 47: 77)
- c. 겨겨시 엇진 말이뇨 네가 도져히 누구의 친척인 줄을 명박히 말한여라 (홍루몽 49: 6)
- d. 이 윙희 년괴가 격지 아니한나 도져히 성인한는 과업을 비호고져 흐여야 비로소 종신토록 님신양명한는 일이니 (홍루몽 81: 71)

e. 비록 보공은 헌여시나 도져히 끊지 못할리라 그러나 나는 다시 헌지 못할
것다 (홍루몽 52: 96)

'나마' 와 '벼거' 는 원래 용언의 활용형이었으나 명사로 어휘형태화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봉져가 벼거 되고 그 나마는 다 십오륙칠세의 지나지 못한지라(鳳姐次之, 餘者皆不過十五六七歲.)' (홍루몽 49: 29) 와 '모양은 도로히 그 벼게 되느니라(模樣兒還在其次.)' (홍루몽 35: 85) 가 그 예들을 보인다. '양' 은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의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토 사름이 이 벼슬을 헌지 아니할량이면 도로히 그리할려니와 만일 벼슬을 헌 양이면 뉘가 쥬접하는 거시 모다 혼곳의 잇기를 보두리잇가' (홍루몽 100: 41)의 예는 그러한 차이가 표기상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보인다.

V. 나오기

근대한국어 시기 및 개화기 시기의 번역소설들은 아직 한국어학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번역된 소설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은 다 번역자와 번역시기가 밝혀져 있어 한국어학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880년 초반에 이루어진 번역소설 가운데 『홍루몽』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만간산격으로 어학적 해석을 꾀해 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보다 꼼꼼한 분석을 통하여 현대한국어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소상하게 드리낼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 金明信(2004), 〈樂善齋本 紅樓夢의 韓譯樣相〉,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제61회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회의·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국학교전연구 지원과제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 金貞女(2004), 〈樂善齋本 紅樓夢補와 補紅樓夢의 韓譯樣相〉,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제61회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회의·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국학교전연구 지원과제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 金鍾澈(1985), 〈玉樹記研究〉, 國文學研究 71,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태성(2003), 〈낙선재본 홍루몽 역음 성모 표기체계 고찰〉, 『中語中文學』 33.
- 朴在淵(1993), 〈朝鮮時代 中國 通俗小說 韓譯本의 研究: 樂善齋本을 中心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1), 『古語辭典: 樂善齋 筆寫本 翻譯古小說을 中心으로』, 以曾文化社.
- _____(2002), 『中朝大辭典』,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 _____(2004), 〈紅樓夢系 筆寫本 韓譯小說에 나타난 語彙研究〉,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제61회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회의·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국학교전연구 지원과제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 _____(2007), 〈19세기 말 紅樓夢系 필사본 번역소설에 나타난 어휘 연구〉, 『국어사 연구와 자료』(남성우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태학사.
- 박재연 주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학고방.
- 朴在淵·金瑛·李玟淑(2004), 『紅樓夢 古語辭典: 홍루몽계 필사본 번역 소설에 나타난 어휘를 중심으로』,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 박재연·김영·이민숙(2005), 『홍루몽 고어사전』, 이회.
- 서대석·이광호·이남순·정하영·조희웅(1997), 『한국고전소설독해사전』, 태학사.

- 송철의 · 이현희 · 이용 · 양정호 · 서형국 · 이지영(2007), 『식민지 시기의 어휘: 어휘를 통해 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철의 · 이현희 · 황문환 · 장윤희 · 이용 · 양정호(2008), 『한국 근대 초기의 어휘』, 서울대학교출판부.
- 李秉岐(1940), 〈朝鮮語文學名著解題〉, 『文章』 19.
- 李秉岐 · 白鐵(1957),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 이승희(2003), 〈樂善齋本 紅樓夢 中國語 音韻體系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賢熙(1994a),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_____ (1994b),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韓國文化』 15.
- _____ (1999), 〈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 실태 연구 IV: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5), 〈개화기와 국어학〉, 『한국어학』 29.
- _____ (2006), 〈'멀리서 '의 통시적 문법〉, 『冠嶽語文研究』 31.
- _____ (2009), 〈'조조'의 문법사〉, 『震擅學報』 107.
- _____ (2010a), 〈'채' 와 '째'의 통시적 문법〉, 『奎章閣』 36.
- _____ (2010b), 〈'붙이' 와 '부치'〉, 『崔明玉 先生 停年 退任 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 _____ (2010c), 〈근대한국어의 잉여적 파생접미사 덧붙음 현상〉, 『韓國文化』 52.
- 崔溶澈(1988), 〈樂善齋本完譯紅樓夢初探〉, 『中國語文論叢』 1, 중국어 문연구회.
- _____ (2004a), 〈樂善齋本 完譯 『紅樓夢』에 대하여〉, 권도경 · 박재연 · 김영 校註, 『홍루몽』(상), 이화.
- _____ (2004b), 〈韓國에서의 紅樓夢 傳播와 譯譯〉,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제61회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회의 ·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국학교전연구 지원과제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 _____ (2007),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신서원.